

지역 소식통

부안군 '불팜' 본격 공급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불가사리자원화센터는 오는 28일부터 관내 원예농가와 친환경농업 관심농가에 불가사리 액비(상표명 불팜)를 본격 공급한다.

불팜을 공급하는 불가사리자원화센터는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가 있는 부안군 상서면 봉정리에 위치해 있으며 매일 둘째·넷째주 목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농가를 대상으로 불가사리 액비를 판매한다.

판매가격은 용기가격 2000원을 포함해 10L에 2만 2000원이다.

불팜은 바다 해적생물인 벌불가사리를 민물에 세척해 염분과 불순물을 제거하고 유용미생물인 EM으로 발효·숙성된 유기농업자재로 질소와 수용성 고토 수용성석회의 함량이 높아 화확비료를 대체하는 자연발효비료로 부안군 유기농업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행사성 예산 반납

정읍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행사비와 국외여비 예산 잔액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납하는 예산은 직원 한마음대회와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대회 등 행사비 1억1천만원과 해외 선진노조, 공무직 및 청원경찰 해외 선진지 견학 등 국외여비 5천4백만원 등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

공무원과 공무원노조, 청원경찰은 최근 정읍형 재난지원금과 국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정읍 시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유진섭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빠른 민생안정을 위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며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맞춤형 복지 실현 다짐”

유진섭 정읍시장, 노인·장애인복지 분야 현장 목소리 청취 복지서비스 홍보·제도개선 의견 수렴 등 심도있는 논의도

정읍시가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노인·장애인 시설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시는 유진섭 시장과 노인·장애인 시설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4회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읍시 인구는 2020년 4월 말 기준 10만9,763명으로 그중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만9,833명(27.2%), 장애인 인구는 1만165명(9.26%)이다. 노인과 장애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장애인 관련 예산

(1,466억원)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시민들의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복지 시책 등을 발굴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고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홍보와 제도개선 의견 수렴 등 시민들의 체감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공유했다.

유진섭 시장은 지역 주민의 복지 만족도를 높이고 감동을 주는 정읍시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특히, 시가 추진하는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사업 추진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시설단체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했다.

또한 시설단체 관계자들은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등 건의사항을 전달하며 심도있는 대화를 이어갔다.

유 시장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정읍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설·기관·단체들의 노력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설 단체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고 소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는 유진섭 시장과 노인·장애인 시설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4회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다



부안군 치매안심센터는 부안군민의 치매발생 위험요인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 치매예방수칙 3·3·3 안내판을 설치했다.

## “치매걱정없는 행복한 노후 준비해요”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수칙 3·3·3 안내판 설치

부안군 치매안심센터는 부안군민의 치매발생 위험요인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 치매예방수칙 3·3·3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치매예방수칙 3·3·3은 3권(勸) 즐길 것(운동, 식사, 복서), 3금(禁) 참을 것(절주, 금연, 뇌손상 예방), 3행(行) 챙길 것(건강검진, 소변, 치매 조기발견) 등으로서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쉽게 실천 가능하고 생활밀착형 실천수칙으로 개발됐다.

치매안심센터는 부안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스포츠파크 및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매창공원 등 군민들의 이용이 잦은 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해 지나가는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해하

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는 예방할 수 있다. 치매예방수칙 3·3·3만 잘 지키고 수행한다면 치매예방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치매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치매예방 체조 콘텐츠 및 치매바로알기 보드형 교육자료 배포 등 치매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의 치매예방 및 인지증진을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궁금한 사항은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 063-580-3093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 고구마’ 이마트와 손잡고 완판 도전

내일부터 7일간, 전 매장 ‘못난이 고구마’ 특가 판매행사

대한민국 명품 고구마인 ‘고창 고구마’가 전세계 이마트와 손잡고 완판 도전에 나선다.

28일 고창군과 전세계 이마트측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7일간 국내 이마트 전 매장에서 ‘고창 못난이 왕고구마(박스당 2kg)’를 7800원에 판매한다. 이는 현재 이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반 왕고구마 상품 대비 30% 이상 저렴한 가격이다.

작고 예쁜 한 입거리 고구마는 소비자들에게 인기지만, 크기가 큰 왕/길

쭉이 등 이른바 ‘못난이 고구마’의 경우 상품성이 떨어져 가공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총생산량의 35%를 차지하는 왕/길쭉이 고구마는 판로 한계로 재고가 쌓이고 있다.

고구마 말랭이, 분말 스틱 등 가공처리를 통해 소비하지만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에 따르면 학교급식 연구 등 식자재 사업 부진 등으로 고구마 농가의 어려움이 컸다. 이에 이마트 측은 개당 300~600g의

고창 못난이 왕고구마 총 5만박스(100톤)를 긴급 공수했다.

김갑근 이마트 채소바이어는 “앞으로도 지역 농가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창군도 지난해 11월 유기상 고창군수와 조규철 고창군의회 군의장 서재필 고창행토배기정정고구마연합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고구마 가공산업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소규모 고구마 재배 농가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최현숙 고창보건소장, ‘플라워 버킷 챌린지’ 동참

고창군보건소 최현숙 보건소장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플라워 버킷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플라워 버킷 챌린지’는 코로나19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화훼농가를 지원하고, 꽃 소비 촉진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앞서 챌린지에 참여한 고창군의회 조규철 의장에게 사랑의 꽃다발을 전달받은 최현숙 소장은 다음 주자로 의

료법인석천재단 고창병원 조남열 이

사장을 추천했다.

최현숙 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에 작은 희망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건강 100세 시대, 만성질환을 잡아라”

고혈압·당뇨 등 조기 검진 실시

정읍시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 서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질병 부담 감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조기 검진을 실시해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 210명을 모집해 7월 말까지 지역 내 소재한 내과 11개소, 안과 4개소와 함께 합병증 조기 검진사업을 운영한다.

내과 11개소는 이충삼내과, 장희성내과, 김형식내과, 김준식내과, 연세김창훈내과, 열린내과, 장내과, 아나피신경과, 임철수연합의원, 정읍내과다. 안과 4개소는 문성강안과, 삼성밝은안과, 정읍안과, 스마일안과다.

만성질환자는 경동맥 초음파·미세단백뇨검사(내과), 안압·안저, 굴절

검사(안과) 등 합병증 조기 검진을 받는다.

검진 결과는 개별 발송되며 유소견자는 고혈압·당뇨 교실 등 프로그램과 연계해 관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소는 오는 28일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교수를 초청해 사업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관리 교육을 진행한다.

이들 사업담당자는 주민들에게 질 높은 질병 예방과 건강 관리 및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내 가족 이란 생각으로 직원들과 한마음으로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만성질환 조기 검진과 고혈압 당뇨병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방문보건팀 ☎ 539-6092)에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